

# 성폭력상담에 나타난 청소년

조중신

(한국성폭력상담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열림터 시설장)

## I. 청소년 성폭력 실태 및 특성

### 1. 청소년 성폭력피해의 심각성

우리나라 성폭력 발생율은 세계 3위이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 의하면, 전체 피해자의 40%가 19세 이하로 연령별 1위로 보고하고 있다. 본 상담소 2000도 통계에 의하면 전체 4,164회2,873건 중 청소년상담이 914건 21.95%를 차지한다. 이 중 기타 청소년의 성관련 상담은 119건이다. 성폭력 사건 2,309건 중 미성년자 피해는 다음과 같다

<표1> 성폭력피해자의 연령(2000년도)

연령	성인 (20세이상)	청소년 (14세~19세)	어린이 (8세~13세)	유아 (7세까지)	미상	총계
건수	1,326건 (57.6%)	402건 (17.4%)	299건 (13.0%)	140 (6.0%)	138건 (6.0%)	2,307 (100%)

<표2> 청소년 피해자 상담사례 (2000년도)

성폭력상담  402건	유형  피해자 가해자관계		강간 251건		강간 미수 14	성추행 137				
			일반 강간 231	특수 강간 20		강 제 추행 100	성 롱 6	희 남 성 피해 26	통신 매체 음란 2	스 토 킹 3
	아 는 사 람	아버지	22		1	18		18	1	1
친족		14			5					
인척		15			10					
직장내		7			6	2				
동네사람		14	3	3	9					
데이트상대		22	1		4					
성직자		1			1					
동급생/선후배		18	1	1	4					
교사,교사/ 학교관계자		17			19	1				
기타		35	1	2	11					
모르는 사람	52	12	4	13	3	8	1	2		
미상	17	1	3							
기타 성상담 119건	순결, 임신, 낙태, 자위, 이성교제, 학교폭력, 장난전화추정									
전체상담 2873건 중 521건										

## 2. 피해 유형

성폭력상담의 피해유형을 살펴보면 강간 251건(62.4%), 강간미수 14건(3.5%), 성추행 134건(34.1%)으로 나타났다. 어린이피해나 성인피해와 비교해볼 때 청소년 피해에서 특기할 점은 윤간 등 특수강간이 20건(0.5%), 남성피해에서 26건(60%)으로 다른 연령의 동일 피해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는 점이다. 이는 불량배, 학교폭력배 등이 집단폭행, 강도, 흡기사용, 침입 등의 방법으로 폭행을 가하는 데서 청소년이 표적이 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YMCA, "대도시 청소년의 성폭력 실태" 보고서에 의하면, 폭력, 협박 때문에 부

득이 성교를 한 경우 1.6%, 원하지 않았는데도 성교를 한 경우 5.4%, 강간을 당한 경우 1.8%, 윤간 0.8%, 권위에 의한 성관계 1.9%로 실제적으로 강간경험을 한 여학생은 11.5%로 약 10명중 1.1명이 강간을 경험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 3. 피해자/ 가해자 관계

가해자와 피해자와의 관계를 보면 친족(혈족, 인척 포함), 이웃사람, 학내(동급생, 선후배, 교육자, 학교관계자), 데이트상대, 직장내(아르바이트 등), 모르는 사람(우연히 만난 사람, 강도) 등에 의한 피해이다. 친족 내 피해가 높는데 (44건) 이는 친족내 성폭력이 어린이 때부터 시작되어 청소년기에 이르기까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어린이와 청소년은 가족내에서 취약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다른 가족이 알게되거나 가출 등으로 피해상황에서 벗어날 때까지 지속적으로 피해를 입게된다. 본 상담소에는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인 열림터가 있어 가해자와의 격리가 필요한 친족성폭력피해자들의 상담이 많은 편인데 피해자들의 대부분이 청소년이다.

또한 데이트상대, 동급생, 선후배에 의한 강간피해가 많은 점에서 볼 때 가해자가 연령대가 비슷하거나 약간 높은 청소년임을 짐작하게 한다. 데이트중의 성폭력 피해는 가해자와 피해자간의 의사소통과 성폭력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크다는 점에서 성폭력예방교육이 치중해야할 부분이라고 보여진다. 성추행부분에서 교사, 강사에 의한 피해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학생들이 사제간이라는 권력관계에서 거부나 저항을 할 수 없는 취약한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

#### 3-1 친족에 의한 성폭력

<친족의 범위> 친족 성폭력은 친족에 의해 일어나는 성추행에서 강간까지 포함하는 성폭력을 말한다. 성폭력특별법에서의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으로 규정하고 비친고죄로 엄벌에 처해지고 있다. 그러나 본 상담소에서는 친족이란 현행법에 한정하지 않고 혈족과 혼인에 의해 사회, 문화적으로 성립된 인척관계를 포함한다.

<피해시기> 친족 성폭력은 보통 어린시절부터 시작되어 청소년기, 성인이 되어서도 지속된다. 대개 어린이 성폭력 피해의 약 30%가 친족성폭력으로 피해자의 연령이 학령기가(8~13세) 3.2%로 일반 어린이 피해(65.5%)보다 높다. 또한 강간이 64.2%(일반어린이 38.8%)를 차지하며 학령기 어린이 95.1%가 강간피해자이다.

<피해유형> 일반 성폭력 피해와 마찬가지로 그 피해유형은 성인의 유형과 비슷하다. 대개 5,6세 유아시기에 추행으로 시작되어 초등학교 고학년, 중학생에 이르면 거의 모두 강간피해에 노출이 된다. 손가락으로 질삽입 또는 항문삽입, 혀넣고 키스하기, 성기 만지기, 가슴만지기, 구강성교 강요 등의 성추행에서 다양한 체위의 강간에 이르기까지 어린 피해자를 학대한다.

<가해자>는 아버지 관계에 있는 친부(44.6%), 의양부(12.8%)가 높은 비율을 나타내며 가장 가까운 형제인 친오빠가 14.9%, 사촌오빠 12.8%, 삼촌, 외삼촌이 10.9%를 차지하고 있어 72.3%의 (친의양부, 친오빠, 사촌오빠) 근친성폭력이 발생하고 있어 피해의 장기화가 우려되고 있다.

<피해 후유증> 가족, 친인척 등 가장 신뢰하는 사람에게 피해를 입기 때문에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으로 더욱 심각한 후유증과 어려움을 겪게된다. 이것은 임신과 낙태, 불임,가출, 자살시도, 살인 등 극한 상황까지 몰아가는 심각한 후유증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 3-2. 교육자(교사, 강사)에 의한 피해

군사부 일체라는 유교적 관념이 아직도 강한 우리 사회에서 교직은 성직과 마찬가지로 윤리도덕적인 신뢰와 기대를 받고 있다. 더우기 교육열이 높고 교육에 자녀들의 장래를 결정적으로 기대하고 있는 현실에서 교육자는 막대한 영향력과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어린이나 청소년은 아직 사회적으로 심리적으로 독립된 존재가 아니라 가르침을 받는, 영향력을 받는, 스스로 결정하거나 선택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취약한 위치에 있다.

이러한 권력관계에서 교사에 의한 성폭력은 교육의 모습으로 위장되기 쉽다. 이

는 피해자에게 교사의 사랑과 관심의 표현인지 성적인 피해인지 혼란스럽게 하고, 교사와 제자의 위치에서 불이익을 당할 것이라는 두려움과 무력감으로 드러내기가 힘들고, 용기를 내어 드러내보아도 피해자에게 불리한 결과로 이끌어지기 쉬워서 다른 유형의 성폭력보다도 더 많이 은폐되고 심각한 후유증을 나타내고 있다.

중고등학생의 경우 상습적인 교사에게서 수업 중, 생활지도 중에 성추행이 일어났으며 이에 대한 항의는 교육행위이라는 미명하에 묵살되곤 했다. 강간사건인 경우에는 위계로 유인했거나, 대부분 학생이 선생을 사모하여 쫓아다녔다, 집으로 찾아왔다며 화간을 주장하는 파렴치함을 보였다. 이 경우 미성년자간음, 업무상 위계에 의한 간음 및 강제추행으로 처벌되어야 한다.

### **3-3 동급생, 선후배에 의한 피해**

청소년끼리의 경우는 장난이나 호기심의 차원에서 무마되고 있으며 피해가 심각한 경우에도 형사상 처벌을 받지 않는 14세 미만 미성년자일 때 학교 교사의 중재로 사과나 문책, 전학 등의 조치를 하고 있다. 그러나 상습적으로, 여러명이 어울려서 취약한 환경의 여자아이를 골라 괴롭히는 양상이 자주 드러나고 있고, 그 피해 후유증도 심각하다.

청소년피해는 동급생, 선배에게 당하거나 데이트 중의 피해가 다수이며 치상이나 윤간이 아닌 경우는 같은 또래라는 이유로 동의된 성관계로 취급되곤 한다. 그리고 이 문제가 드러나게 될 때 가해남학생은 별 타격을 안받고 오히려 소문을 퍼뜨리며 과시하는 모습까지 보이며, 피해여학생이 평소의 학업성적, 품행, 옷차림, 가출 경력이 들먹거리지고 학교를 관두거나 이사, 전학을 하는 경향이 있다. 편견과 선입감없이 피해자 중심의 시각에서 보호하고 배려하는 교사의 상담이 절실히 요구된다

### **3-4 데이트 상대에 의한 피해**

선배, 동급생 등에 의한 성폭력의 많은 부분이 데이트 성폭력이다. 그 외에 전화

방을 통해 알게되었거나 채팅으로 만난 사람, 속칭 원조교제라고 불리는 10대 매매춘 행위가 포함된다. 이 상황에서는 청소년 자신도 성폭력이라고 인식하지 못하기도 하며, 문제제기시 가해자는 동의된 성관계를 주장하면서 책임을 회피한다. 더구나 선물이나 물품을 받은 경우 대가성으로 오해받고 있으며 많은 경우 재피해에 계속 노출되면서 임신, 낙태의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기도 한다. 이도 청소년의 미숙한 판단력을 이용하여 유린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범죄임을 인식해야 한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00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 청소년 : 19세 미만의 남녀

※ 매매춘 업주 가중엄벌주의 채택 및 신상공개 제도 도입

※ 매춘 청소년 불처벌주의로 전환 및 보호처분 부과

- 귀가조치, 보호관찰, 병원 등 위탁, 소년원 수감, 선도보호시설 위탁 등 처분

※ 매매춘 고객 형사처벌 외 신상공개 제도 도입

#### 가)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제5조)

-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나) 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 등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1)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자(제6조 제1항 제1호)

(2) 위계 또는 선불금 기타 채무를 이용하여 청소년을 곤경에 빠뜨려 청소년으로 하여금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한 자(제6조 제1항 제2호)

(3) 업무 고용 기타의 관계로 인하여 자신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것을 이용하여 청소년을 하여금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자(제6조 제1항 제3호)

(4) 영업으로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 권유한 자  
(제6조 제1항 제4호)

다) 영업적인 청소년 매매춘 업주

- 제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죄를 범한 자가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거나 이를 요구 또는 약속한 자

-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라)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 권유한 자

(제 6조 제4항)

-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마)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제7조 제1항 제1호)

영업으로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하거나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기로 약속한 자(제7조 제2항 제4호)

- 5년 이상 유기징역

- 미수범 처벌

바)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 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제8조 제2항)

- 7년 이하 징역

청소년을 이용 음란물을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제8조 제3항)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사) 여자 청소년에 대하여 강간의 죄를 범한 자(제10조 제1항)

- 5년 이상 유기징역

아) 청소년에 대하여 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제10조 제2항)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

자) 청소년에 대하여 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제10조 제 3항)

차)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여자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청소년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 (제 10조 4항) 제10조 제1항, 제2항의 예에 의함

파) 친고죄(제 10조 1항에서 4항 )

고소장이 있어야 논한다.

#### 4. 청소년 성폭력피해에서의 어려움과 후유증

법적으로 만 13세 미만의 어린이에 대한 성폭력은 미성년자 의제강간(강제추행)으로 폭력사용여부, 저항여부, 동의여부를 불문하고 범죄행위로 취급되어 엄하게 처벌하고 있다. 그러나 14세 이상 20세 미만의 청소년들이 피해자가 되었을 때 여러가지 어려움을 겪게된다. 강간치상이나 윤간, 흥기를 소지하거나 야간에 침입하거나 강도강간 등 특수강간을 제외하고는 거의 동의여부를 의심받게 된다. 이는 요즘의 청소년들이 성에 대하여 개방적이고 자발적이라고 보여지고 있고 청소년기는 어린이보다는 어느정도 판단능력과 방어능력이 있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미성년자 간음죄는 거의 실효성이 없고 가해자가 강간임을 부인하고 동의된 성관계라고 주장할 때 많은 청소년 피해자들이 주변사람들과 수사과정에서 평소의 행실과 차림새에 대하여 비난받고, 화간인가를 의심받고, 거짓말탐지기로 진술의 신뢰성을 조사받고, 부모의 보호나 동석이 없이 억압적인 상황에서 피해자 진술을 해야했고, 결정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리되었으며 피해자로서 보호받고 배려받기보다는 그런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손가락질과 비난에 시달리며 알려질까봐 고소도 못하고, 고소를 했다가도 취하하고 전학이나 이사나 자퇴를 하게되는 괴로움을 겪고 있다.

가임기인 청소년피해자들이 겪는 신체적피해 중에서 심각하게 나타나는 것이 강간으로 인한 임신이다. 청소년피해자들은 거의 피해사실조차 부모에게 얘기하지 못하는 현실에서 혹시 임신이 되지않았을까 성병에 걸린게 아닐까 불안해하면서 고통받는 경우가 많다. 임신중절이 어려운 6개월이상까지 아무런 조치를 못하고 있다가 무리하게 낙태를 하여 몸을 심하게 상한 경우도 있고 하는 수 없이 출산을 하고, 입양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었다.



대부분의 경우 정서적인 충격으로 불안, 공포, 민감, 집중력저하, 불면 등에 시달리고 있으며 순결상실감, 절망감, 자포자기, 섭식장애(거식증, 폭식증) 자해, 자살기도, 우울증 등 정신치료를 요하는 상태가 되기도 한다. 특히 다른 사람이 알까봐 타인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기 힘들기도 하고 남성을 혐오하고 기피하기도 하며 대안관계나 가족관계에서 문제가 생기기 쉬우며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하여 학습부진, 방황, 가출, 자퇴를 하게되기도 한다. 어떤 경우 자기감정을 억압하고 상처를 보상하기 위하여 철저하게 학업에만 매달리거나 종교에 빠지기도 하는데 부정적인 자기개념으로 과잉희생, 과잉통제를 나타내기도 하며 다중인격적인 면이 나타나기도 한다. 한편 어떤 피해자는 무력감과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성폭력에 계속 노출되어 반복피해를 당하기도 하며 스스로 불량학생과 어울리고 파괴적인 분노표출로 과잉성행동이나 윤락행위에 빠져들기도 한다.

## 5. 저연령화하는 성폭력 가해자, 청소년 문제의 심각성

청소년 가해자의 연령이 점차 낮아지고 있다. 청소년 성폭력의 특성은 집단강간 범죄의 절반을 차지하며 가족면전 강간범의 30%를 차지할 정도로 대담성과 잔인성을 보여준다는 점이다. '86년 강간의 43.2%가 10대 범죄이고 이중 66.6%가 집단 비행이라고 한다.(동아일보88,12.21) 가족면전 강도 강간범중 36%가 10대 청소년으로 보고되고 있다.(감상회,1992). 치안본부, <88년 약취 유인 사범에 대한 단속 결과 분석 자료>에 의하면, 인신매매범 중 10대가 50%, 20대 35%를 차지한다.

성폭력가해자의 99.4%가 남성이며 가해자는 대부분 피해자보다 연상이다. 가해자 중 중고등학생이 23.8%로 나타났다. 미성년자는 소년법에 의해 가정법원에서 처리되고 있는데 형사책임능력자인 14세 이상인 자와 형사미성년자인 13세 이하인 자로 나뉘며 이는 또 소년법의 보호처분만의 대상인 12세 이상 14세 미만인 자와 그 이하의 미성년으로 나눌수 있다.

<가해행위> 청소년 성폭력의 대상은 주로 또래집단 여학생이거나, 자신의 가족, 친족, 혹은 이웃집 어린이, 청소년들이다.

1) 유아, 초등학교학생에 대한 가해로는 사촌동생, 동네 여자아이에 대한 성추행, 강간미수, 강간, 윤간, 남아에 대한 성추행, 항문성교 등이 나타나고 있으며

2) 청소년에 대한 가해로는 금품갈취, 집단폭행 등 학교폭력과 병행, 데이트강간, 본드 등 약물중독상태에서 혼숙 등이 나타나고

3) 성인여성에 대한 가해로는 강도, 특수강도, 절도를 신고한 할머니를 보복강간, 새벽예배 가는 할머니를 흉기협박한 강간미수치상 등을 볼 수 있다.

<청소년의 가해동기와 현상>을 살펴보면

1) 인격 발달은 성숙한 단계에 이르지 못한 반면 신체적인 성욕구가 활발해지면서 우울과 분노를 공격적으로 표현하는 경향이 많다.

2) 단지 호기심으로, 친구가 하자고 해서, 여자가 원하는 것 같아서 했다고 하는 청소년들도 많다.

3) 가족간에 문제가 있거나 학교생활에 열등감을 느끼거나 스스로 조절능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사회화 과정에서 가정과 학교로부터 유대가 약화되면서 비행 친구들과 어울리게 되고 폭력과 음란물에 접촉하면서 성폭력을 부추기는 ‘강간신화’에 대해 수용적인 태도를 가지게 된다.

4) 남성다움을 성기중심적으로 해석하여 성적인 행동에서 더 과시적이다. 자신들의 생활방식인 폭력을 자신들을 인정하지 않는 여성들을 혼내주고 굴욕감을 갖게 하는데 사용한다.

5) 여성들이 남성에 비해 열등한 존재라는 여성비하감에 바탕을 두고 여성에 대한 지배를 과시하고 남성다움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성폭력을 행하기도 하고 여성을 성적대상으로 보고 성폭력을 기분을 푸는 오락과 모험의 한 형태로 인식하기도 한다.

6) 대중매체에서 묘사하는 과장되고 비정상적인 행위들을 정상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일상화시켜 성폭력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7) 주변에서 쉽게 접하거나 함부로 할수 있는 어린이에게, 때론 집단으로 금품갈취와 폭력행위를 같이하는 경우도 있다.(박현이 1997)

<가해자의 처벌> 강간은 3년 이상의 징역(친족인 경우 5년 이상) 강제추행은 10년이하의 징역(친족인 경우 3년 이상)인데 가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초범, 학생신분일 경우 정상참작이 되며 소년법에 의하여 가정법원에서 처리되어 소년원에 수감되거나 선도를 받고 사회봉사도 명령되고 있다. 고소취하 합의금 조로 피해보상을 하거나 민사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보상을 하는데 기준은 피해정도와 가해자의 지불능력에 따라 조정되지만 가해자가 미성년자이므로 그 친권자인 부모가 배상책임이 있다. 그외 사과, 공개사과, 학교에서의 징계, 전학, 이사, 차후 이상이나 나타날 때의 보상, 피해자의 심리치료 및 피해자 가족의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보상, 가해자의 정신감정 및 치료요구 등의 피해자 측 요구가 있다.

## II. 청소년 성폭력 대책방안

그동안 성폭력문제가 대두되면서 단계에 맞는 성교육과 성폭력에 대한 올바른 인식, 성폭력을 예방하는 교육 등을 실시해야 한다는 대안이 끊임없이 제시되어 왔다. 그러나 왜곡된 성문화가 범람하고 도처에 비인간적인 폭력이 난무하는 현실 속에서 청소년들은 자신의 좋고 싫은 감정이 무엇인지, 자기의 의사나 주장을 어떻게 표현해야할지, 다른 사람 특히 남성과 의사소통을 어떻게 해야할지, 진정한 인간관계와 애정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며 그것을 위해 자신은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하고 어떻게 책임을 져야하는지 혼란스럽기만 하다. 학교폭력이나 강도, 납치 등 금품갈취와 함께 가해지는 무차별적인 범죄 앞에 청소년들은 속수무책으로 표적이 되고 있다. 이들에게 피해를 예방하지 못한, 가해에 대해 방어하지 못한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 1. 학교에서의 예방과 대책

이제는 학교라는 현장에서 교사에 의해 저질러지는 성폭력도 범죄행위로 명백히

드러냄으로써 마땅히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게해야 다시는 이런 일이 학교 내에서 일어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학교내에서 동급생, 선후배에게 피해를 입었을 때 학교는 가해자와 피해자 양측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해야할 것인가, 이 문제를 접한 다른 학생들에게 어떤 영향이 미칠 것인가에 대하여 고심하게 된다. 그리고 학교 밖에서 학생이 성폭력사건의 피해자가 되었음을 인지하게 되었을 때 상담과 후속지원을 어떻게 해야할 것인가 하는 과제를 해결해나가야 한다.

첫째, 가해자가 되지 않고 피해자가 되지않도록 학생 연령에 맞는 성교육, 성폭력 예방교육, 인간 존중교육, 의사소통훈련을 어릴때부터 남녀학생에게 함께 실시하여야 한다.

둘째,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교육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일단 피해를 입었을 때나 그 피해로 인한 후유증으로 학교생활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고 힘들어할 때 가장 밀접하게 생활하는 교사의 역할과 태도는 부모만큼이나 중요하다. 교육현장에서 교사들은 성폭력피해학생을 발견하거나 상담을 통해 인지하여 가장 먼저 접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위기개입이나 적절한 지원을 하여 후유증을 최소화하고 건강하고 밝은 생활을 하도록 학교생활에서 지속적으로 지켜주어야 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똑같은 피해를 당한 경우에도 피해자가 가진 소양이나, 지원여부에 따라 극복이나 치유과정에 큰 차이를 보인다. 피해학생에게 영향을 줄수 있는 사람이 성폭력에 대하여 어떤 인식을 하고 있는가는 그대로 피해학생에게 주입되며, 위기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는 자신이 존중받고 있으며 보호받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어 자아 존중감을 회복하고 상처에서 벗어나오는데 큰 힘이 되는 반면 적절한 지원이나 보호를 받지 못하고 부인, 비난 등 부적절하게 처리되었을 때는 피해사건 자체보다도 더 큰 2차 피해를 입게 되어 심각한 후유증을 겪게 된다.

그러므로 피해학생이 안심하고 의논하고 상담하고 지원받을 수 있는 분위기를 확립하고 피해로 인해 학교생활에서 불이익을 겪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또한 이

를 인지한 교사가 신고의 의무를 어떤 방식으로 수행할 것인가 구체적인 지침이 있어야 하며 피해자를 의무적으로 지원하고 조치하는데서의 기준 등을 마련해야 한다. (예를 들어 성폭행으로 임신한 학생이 원치 않을 때 상담내용을 학부모에게 알릴 것인가의 여부, 친부 피해시 피해학생을 피신시켜주고, 안전할 때까지 결석처리 해주고, 노출없이 전학시키는 등의 지원여부, 친권을 들먹이며 학교에 와서 행패를 부리는 경우 교사의 신변보장과 고발여부 등) 피해학생들이 후유증을 최소화하고 건강하게 치유될 수 있도록 상담과 치료를 지원해야 하며, 학부모가 이 문제에 두려움없이 학교와 의논할 수 있고 피해 자녀에게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또한 가해자가 되어있는 학생에게 무조건 징계와 퇴학 등 범죄자로 낙인찍지 말고 재범을 막을 수 있는 교정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시해야한다. 이미 형성, 고착되어 있는 성폭력행위는 처벌만으로는 쉽게 종식되지 않고 재범으로 악화되기 쉽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는 형벌보다는 교육의 차원에서 감싸주고 가해자의 의식과 문화를 교정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넷째, 위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선 일반교사에게는 교직과목 이수시 성폭력예방교육과 성교육을 필수화하고 정기적으로 일선교사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 성과 성폭력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켜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해야한다. 또한 교육자가 가해시에는 친족성폭력처럼 가중처벌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해야한다. 형사상 처벌을 받지 않으면 파면시킬 수 없다는 공무원 보호법에서 교육공무원이 학생에게 성폭력피해를 주었을 때는 제외시켜야 하며, 성범죄 전력을 가진 사람이 어린이 및 청소년을 접하는 직업에 복무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다섯째, 성교육 전담부서가 마련되어 성교육프로그램을 실정에 맞게 개발하고 유치원에서 고등학교까지 모든 교육기관에서 성폭력예방교육을 필수화하여야 하며, 성교육전담 상담교사를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전문적으로 훈련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성교육, 성폭력예방교육

프로그램도 사회교육차원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 2. 피해자 부모, 가족 내에서의 지원

만약 부모가 자녀와 대화를 잘 하고 있었다면 자신이 당한 일을 부모에게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많은 청소년들이 부모가 충격받고 실망하고 걱정할까봐 자신의 피해를 부모에게 말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피해에 자신의 과실이 있지 않나하는 자책감을 가진 경우 심각한 후유증(임신, 출산, 정신이상, 가출 등)으로 알려지게 될 때까지 말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평소의 자녀의 행실- 학습부진, 불량행동, 옷차림, 교우관계, 등-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던 부모는 성폭행을 있는 그대로의 피해로 받아들이지 않는 경향이 있어 사건 자체보다도 더큰 2차피해를 주기도 한다. 어떤 경우에도 부모는 자녀의 편에 서준다는 믿음을 줄 수 있어야 하며 자녀가 괴로움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신호에 민감해야 한다.

청소년의 민감성과 취약성 때문에 성폭력은 청소년에게 특히 파괴적이다. 신속하고 신중하게 취급되지 않을 경우 청소년에게는 치명적인 상처를 준다. 당황한 부모들이 그일의 심각성을 최소화시키려고 하고 지지적인 반응을 하지 않거나 부정적인 반응까지 하게 되면 피해자는 자책감에 빠지게 되고 혼란스러워진다. 또한 부모의 좌절은 분노에 찬 비난이 되어 자녀에게 향해지기 쉽다.

청소년기에는 성적인 정체감과 자아정체감 형성에 예민한 시기이므로 이러한 현실을 알고있는 부모들은 고소를 하면 자녀가 더 많은 마음의 상처를 받을까봐 망설이기도 하고, 고소를 했다가도 합의를 조르는 가해자 측에 시달려 고소취하를 하고 마는 경우가 많았다.

성폭행을 당하고도 주위어른의 반응으로부터 당혹스러움을 느끼게 된다. 피해자는 그 상황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모르게 된다. 상처받은 피해자는 적절한 도움-의료적 치료와 감정적 지지-을 받아야 하는데 어떤 부모들은 성폭행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인정하려들지를 않고 치료의 필요성을 간과하거나 거부하기도 한다. 어떤 경우이든 피해자가 후유증을 최소화하고 밝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돕는데 초

점을 맞추어 상담을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 3. 사회적인 정책 대안

1) 학교 주변환경 정화: 학교주변의 만화방, 노래방, 비디오방 등에 대한 상시적 점검

2) 음란물에 대한 실효성있는 대책 수립 및 실행:

음란 만화, 비디오, 잡지 등의 유통구조, 검열에 대한 대책마련 시급

3) 통신 매체를 이용한 음란물 유통, 음란행위에 대한 대책마련 :

통신 안에서의 이러한 음란물에 대한 판단능력과 자정능력을 키울 수 있는 성교육, 성폭력 예방프로그램 개발

4) 사법처리인들(경찰, 판,검사) 대상 성폭력 교육 실시:

성폭력에 대한 바른 인식 정립과 어린이, 청소년 피해자 조사, 처리과정에서 요구되는 상담 기술 등에 관한 교육의 필수화.

5) 성폭력 전문경찰제도와 조사, 상담실 환경 개선, 사건에 대한 비밀 엄수 (언론공개 자중).

6) 성폭력 예방을 위한 언론매체의 적극적 활용방안 개발: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 및 예방교육을 위해 공익 광고를 만들거나, 국영방송은 1년에 일정 시간 성폭력, 성교육, 올바른 성문화 정착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 방영해야 할 의무를 갖게 하는 등의 적극적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7) 정부와 민간 단체와의 협조체제 구축:

성폭력 상담소 등과 같은 성폭력 관련 사업을 하는 민간, 여성단체들과 관련 부처들간의 정보 교환 및 대책방안 수립시의 의견개진 등의 긴밀한 협조 체계의 필요성.